



주 제:	“진리의 성령”	“부활 제 6 주일”	2008년 4월 27일
복음 묵상:	[요한 14,15-21]	[사도 8,5-8.14 -17]	[1 베드 3,15-18]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삼위일체와의 친교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은 삼위일체와의 사랑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기쁨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켜 기쁨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니,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써,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에 넘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여 줍니다(사도 8, 17). 베드로 사도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박해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1 베드 3, 16-17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요한 14,23) (안동전 장호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수채화 전시회.** 김재훈 세실리아 자매님과 강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그동안 만드신 작품의 전시회를 토 4월 26일 2시에 본당에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 참석하시어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심한 감기 몸살로 지난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금주 **최주남 예로니모 형제님과 최 효원도미니카 자매님** 2주일간의 여정으로 한국에 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 효식 필립보 네리** 형제님 5월 2일 부터 4일간의 여정으로 동부로 가십니다. 하고저 하는 모든일이 주님과 함께 잘 이루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합니다.
- **이흥진 테레사** 자매님은 5월 5일 돌아올 예정으로 4월 11일 고국 방문을 떠났습니다. 여행중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 5월 귀국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여행 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만은 지킵시다.

- 미리 나누어 준 예정표의 성가를 계속적으로 아침에 연습하고 있어오니, 바쁘시더라도 아침 시간을 엄수하여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 악보 정리하며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성가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가대 소식난은 꼭 읽어 보시고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우리의 작은 불편을 주님께 봉헌하며 환한 주님의 웃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복음 [요한 14,15-21]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 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 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 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 오겠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1분 명상

" 하느님을 상상하기, "



하느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의 하느님을 그리겠는가?
온화한 표정을 하고 계실까,
아니면 굳은 얼굴을 하고 계실까?
심판자처럼 보일까, 아니면 미소 지으며
가까이 오라고 기꺼이 초대하면서
팔을 벌리고 계신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계실까?
하느님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하느님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분이신지가 결정됩니다.
당신은 굳은 얼굴을 한 심판자에게는
그다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잡지의 편집자에게 온 편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왜 항상 인생에서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걸까요?"

글을 쓴 사람이 하느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질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느님에 대해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은
요한복음 14 장에서 17 장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느님을 다정하고
보살피주는 분으로 믿는다면,
많은 희망과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하느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